

# 민주화·한반도 평화·이웃사랑 온 몸으로 실천한 시대의 의인

**살아온 길**

찬송가 듣고 사제의 꿈 키워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서 증인  
서민·장애인 위해 평생 헌신  
광주일보와 '통일농장' 추진  
통장 잔고 0원...청빈한 삶

21일 세상을 떠난 고(故) 조비오 신부는 생전 강직한 성품으로 평평이 나왔었다. 광산구 보량동 시골에서 태어난 그는 청년시절 바위로 직접 운동기구를 만들어 운동을 했고 복싱도 배워 당해날 사람이 없었다고 알려졌다. 어느날은 트럭 운전사들이 경적을 시끄럽게 울리며 마을 앞을 지나가자 끝까지 쫓아가 혼을 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거칠었던 그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천주교 신부가 된 배경에는 마음 깊이 간직한 감수성이 있었다. 20대 초반 때 나주 노안 성당에서 열린 공쿠르에 놀러간 그는 외국인 신부가 부르는 성가에 매료돼 사제에 대한 꿈을 키웠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보량동에 거주하는 일가친척 수백명을 천주교에 귀의시키기도 했다.

1962년 광주가톨릭대학교 17기로 입학해 1969년 12월 1일 사제 서품을 받았다. 신부가 된 이후에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은 그대로 이어졌다. 나주성당 주임신부로 재직하던 시절(1973~1976) 가톨릭 농민회를 지도하며 농민 권익을 위해 앞



지난 2008년 천주교 광주대교구 임동주교좌성당에서 조철현 비오 몬시뇰 서임축하식이 열리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희중 대주교, 윤공희 대주교, 조비오 신부. <광주일보 자료사진>

장했다. 계림동성당 주임성당 시절(1976년 11월 12일~1981년 9월 13일) 5·18을 겪어서 목도했을 때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시민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했고 육교를 치르기도 했다.

불같은 성격 이면에는 따뜻한 마음도 존재했다. 5·18 항쟁 이후 상무대 영장에 갇혔을 때 자신을 가진 군인들이 참회할 수 있도록 눈물의 기도를 올렸던 일화가 전해진다. 세월호 사건 때도 가장 목놓아 울었던 사람이 조 신부였다.

2006년에는 아리랑국제평화재단 초대

이사장을 맡아 북한동포돕기 운동을 펼쳤다. 2008년 광주일보와 함께 연해주 통일농장 사업을 추진해 재배한 콩을 북한에 제공하기도 했다.

지난 2006년 8월 사목 생활을 퇴직하고 나서부터는 여생을 봉사활동으로 보냈다. 소화자매원 이사장을 맡아 장애인 인권 증진에 힘썼다. 또 광주·전남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등을 지내며 사랑을 실천했다.

이런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2008년 교황청으로부터 천주교 명예 고위 성직자이자 교황의 명예 전속 사제인 몬시뇰에 임

명됐다. 국내에서 28번째다. 조 신부는 지금의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기틀을 다지기도 했다.

그가 남긴 통장 잔고는 0원. 가난한 이웃과 나눔을 실천한 까닭이다. 유품도 많지 않다. 평소 애독했던 책과 옷 몇벌 뿐이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조 신부의 유지대로 소화자매원에 기증할 계획이다.

퇴임식에서 "가난하고 힘 없는 이들을 위한 활동에는 은퇴가 없다"고 말했던 조 신부가 영원한 안식을 얻으며 남긴 마지막 선물이다. /김용희기자 kimyh@

## 강신석 목사·지선 스님과 각별한 우정 종교 초월 현대사 고비 때마다 한 목소리

21일 선종한 고(故) 조비오 신부는 타 종교 성직자들과도 민주화, 통일, 시민사회에 관한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 중에서도 종교를 떠나 평생 민주화 운동의 동지인 강신석 목사, 지선 스님과 나는 우정은 각별했다.

이들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겪은 후 현대사의 고비 때마다 종교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언제나 한 목소리를 내었다. 정부와 정치권,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를 향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조 신부 등은 은퇴 이후에도 지역 사회의 '큰 어른'으로서 민주화의 초석을 놓은 5·18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이끄는 등 민주화와 통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운동을 함께 펼치기도 했다.

이날 조 신부의 선종 소식을 들은 지선 스님은 "며칠 전야 조비오 신부님과 강신석 목사님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눈을 감으실 줄 몰랐다"며 "민주화가 퇴보하고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는 현대에 조비오 신부님과 같은 큰 어른이 사회에서 중심을 잡고



강신석 목사 지선 스님

힘과 용기, 지혜를 주셔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선 스님은 "조비오 신부님은 원칙적으로 항상 강인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같은 후배들이 흔들리지 않게 다잡아주는 선배였다"며 "세계는 종교가 달라도 항상 '형님' 같은 분이셨다. 웃고 손 잡을 때는 인자하면서도 불의에는 단호했던 모습이 떠오른다"고 전했다.

병환 중인 강신석 목사도 조 신부의 선종 소식을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강 목사는 "아직 가실 때가 아닌데 아까운 분이 가셨다"며 "만날 때마다 차 한 잔씩을 나누면서 국가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애도했다. /김경민기자 kki@

## “나도 총 있었다면 공수부대 쫓을 것”

시민수습위 활동...DJ와 함께 육교 치르기도

### 조비오 신부와 5·18

“내게 총(銃)이 있었다면 그 총으로 공수부대를 향해 쏘고 싶었다.”

지난 1989년 2월 조비오 신부는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980년 5월 19일 광주에서의 공수부대 만행을 직접 목격했을 당시의 분노를 고백했다.

그는 눈 앞에서 벌어지는 공수부대의 만행에 어찌해볼 방법이 없었다는 점에서 자신의 존재가 한없이 미약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조 신부는 그러나 절망감에 사로잡혀 성당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공수부대가 탱크를 앞세우고 전남도청(금남로)으로 진격한다는 소식을 접한 5월 26일 홍남순 변호사를 비롯한 시민 수습위원들과 함께 “총알받이가 되겠다. 학살을 멈추라”며 죽음의 행진에 나섰다. 한

명의 목숨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항쟁 기간 내내 참혹한 학살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그러한 이유로 1년여간 육교를 지렸다. 조 신부가 5·18의 선증인, 시대의 의인으로서 추앙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80년 5월 광주학살 현장에서의 저항, 전두환 신군부 만행 종료 후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촉구, 광주시민 명예회복 운동 그리고 5·18 상처 치유까지 5·18민중항쟁 발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은 5·18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2월 열렸던 ‘광주 청문회’에서는 송기수 교수, 명노근 교수, 윤영규 전 전교조 위원장 등 당시 시민수습위원 자격으로 청문회에 참석, 공수부대가 총과 대검, 곤봉, 군화발로 시민들을 쏘고 찌르고 때리고 짓밟았던 순간을 똑똑히 증언했다.

군인들의 헬리콥터 기총소사를 처음으



1989년 2월 24일자 광주일보에 실린 조비오(점선 안) 신부의 5·18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 증언 관련 기사.

로 증언한 것도 조 신부였다. 1980년 5월 헬기 기총소사를 목격한 신부과 김성호, 김형구, 홍난서 등 6명의 증언을 토대로 성명을 내고 계엄군의 만행을 고발하는 등 진상규명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김영삼 정부 이후 광주학살의 원흉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이 법의 심판에 오르고

관련법에 따라 항쟁에 나선던 시민들의 명예가 회복된 이후에는 종교를 통한 5·18 상처 치유에도 힘을 쏟았다.

초대 5·18기념재단 이사장으로서 재단의 초석을 쌓고 각종 기념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나아가갈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대권 잠룡들 광주 조문 행보

손학규 임동성당행...문재인·안철수·천정배 미사 참석 검토

21일 '민주화 증인' 조비오 신부의 선종 소식을 대권 잠룡들의 조문 행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들도 여야 구분없이 조 신부의 선정에 애도의 성명을 내고 있으며, 여야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질 예정이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후 고인의 빈소가 차려진 광주 임동성당을 찾아 조문을 했다. 전날 강진아트홀에서 다산강원 초청 강사로 나서 정계복귀를 재확인한 손 전 대표는 이날 빈소를 찾아 고인의 애도와 함께 고인의 송고한 뜻을 기렸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고인의 장례 미사 참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조우 가능성이 점쳐진다.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도 애조 성명에 대권 잠룡들의 조문 행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도 여야 구분 없이 애도를 표했다.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논평을 내고 "민주화에 헌신한 그분의 뜻이 좋은 결실을 보이도록 정치권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성명을 내고 "민주성지 광주의 큰 별이 진 것을 시인과 더불어 깊이 애도한다"면서 "더딘 주는 신부께서 뜻대로 민주와 평화와 통일의 뜻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애도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논평에서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헌신의 길을 뒤따를 것을 다짐한다"고 약속했다. /최권일기자 cki@

### 사람을 찾습니다

162cm의 아연 체격, M자형 대머리, 목 뒤에 강낭콩 크기만한 혹이 있음

가슴, 배, 머리에 수술자국이 있음

실종 당시 심정계이트볼 글자가 자수로 놓인 검은색 책, 뒷면은 흰색인 모자를 쓰고, 상의 옷이 없이는 반팔에 끈색 망사 주머니가 있는 조끼, 하의 검은색 바지, 흰색 바닥에 검은색 나이키 운동화를 신음

3차레 암수술과 오랜 투병생활로 치매증상 있으며 체력저하로 보행이 불편하고 청력이 약함

심한 통증을 호소할 수 있음(평상시에 약을 못드시면 정도 제대로 못주셨음) 갑자기 통증이 있을시 깜짝깜짝 놀라시기도 함

실종일시 : 2016년 8월 3일  
실종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지구 중흥아파트 정문 인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아빠 좀 찾아주세요!!

**최규복님 아들 최현성**  
**010-5113-6582**

## 혈당조질

###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ATP10골드** 대한민국특허 제0522532호

ATP10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기력)를 10배높인다는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넘쳐나는 포도당을 60조 개의 세포 속으로 이동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인의 지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회사창립 20주년 감사 사은행사로 본제품을 구매하신 모든분께 황칠삼채여주진액 1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우송부

**010-3598-7080**

## 20년 전통 (주)호남경매

###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동구 금남로 3층근린시설 우리은행빌딩 코너위치 대로변 건물250평 토지17평 ▶ 감평가 2억93천 최저가 18억7천만원
- 서구 광천동 5층건물575평 대지223평 신세계사거리코너 투자가치, 건물상태좋음(2003년식) ▶ 감평가 41억6천만원
- 서구 벽진동 주택47평 대지176평 주변환경, 투자가치 1층일반주거지역 ▶ 감평가 2억4천만원 최저가 2억4천만원
- 서구 쌍촌동 2층일반주거지역 도로접 대지499평 투자적합 토지 222평 준주거지역 ▶ 감평가 11억9천 최저가 8억3천

### 상가.토지.병원.사옥.창고부지 매매상담

- 서구 치평동 상가10층중 10층 건물146평 토지26평 롯데마트사거리, 전방종류 ▶ 감평가 8억8천 최저가 5억원
- 장성군 황룡면 2층주택 64평 대지 35평 주변환경 좋음 투자가치, 건물상태좋음 ▶ 감평가 1억1천4백 최저가 8천만원
- 담양군 대덕면 토지 1014평 전원주택지 및 농지포함 투자가치, 주변환경 좋음 ▶ 감평가 4천6백 최저가 4천6백
- 북구 두암동 대주빌라 3층중 3층 건물40평 대지46평 주변환경 좋음 ▶ 감평가 2억5천만원 최저가 1억7천2백

★ 금매 광산구 하남3지구 8차선 대로정 상업지역 대지32평 전면널음, 상권최상 프랜차이즈상당형 ▶ 거래가18억(조정가)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 수강생 모집

### DIY 목조주택 혼자짓기

이동식 목조, 펜션, 농막

### 동영상 이론과 실습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7시~9시

남부대학교 삼매관 ☎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7시~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7시~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